

## 하나님과 주의 생각대로 해라

본 문 이사야 55장 6-9절

할렐루야!

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의 평강과

성령님의 뜨거운 사랑과

말씀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.

◎ 오늘은 <2017년 마지막 주일말씀>을 전해 주겠습니다.

다음 주는 <12월 24일 성탄 이브 행사가 있는 주일>이고,  
그다음 주는 <12월 31일 송구영신예배가 있는 주일>이니,  
오늘 말씀이 실상 <2017년 마지막 주일말씀>입니다.

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과 다음 주 수요일에 추가로 말씀해 주고,  
12월 22일 금요일에는 각 교회별로 성탄 이브 행사 준비하고,  
마지막으로 12월 29일 금요일에 추가로 더 말씀해 주면,  
<송구영신예배>로 2017년을 마무리하게 됩니다.

◎ 오늘 말씀의 주제는 ‘**하나님과 주의 생각대로 해라.**’ 입니다.

◎ 원래 이 말씀은 <내년도 말씀>인데  
성령께서 이 말씀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,

“이 말씀이 <마지막 마무리하는 때에 맞는 말씀>이다.

고로 꼭 <2017년 마지막 주일말씀>으로 보내 주자.” 하셨습니다.

성령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,

<이 말씀에 해당되는 노래>도 주셨습니다.

<영원한 것과 땅의 잠깐의 것을 좌우하는 말씀>이니

잘 듣기 바랍니다.

◎ 하나님과 주의 생각대로 해라. - 말씀 시작하겠습니다.

<말씀 시작>

◆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이사야 55장 6-9절 말씀입니다.

◆ 먼저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

“너희는 여호와를 <만날 만한 때>에 찾으라.

<가까이 계실 때>에 그를 부르라.(사 55:6)” 하셨습니다.

◆ 사람도 <가까이 있을 때> 불러야 대답하고 좋게 대해 줍니다.

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그러합니다.

<삼위가 가까이해 주실 때>, 그때가 ‘기회’입니다.

그때 하면 쉽습니다. 그때는 ‘하나님이 찾으실 때’입니다.

◆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

“악인은 그의 길을,

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.

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.

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.

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.(사 55:7)” 하셨습니다.

- ◆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까요?

정말 하나님이 가까이해 주실까요?

자기 생각대로 하며 불의를 행하던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,  
정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며 용서해 주실까요?

- ◆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.

“이는 <내 생각>이 <너희 생각>과 다르며,  
<내 길>은 <너희의 길>과 다름이니라.

<하늘>이 <땅>보다 높음같이 <내 길>은 <너희의 길>보다 높으며  
<내 생각>은 <너희의 생각>보다 높으니라. (사 55:8-9)”

- ◆ <하나님의 생각>은 <인간의 생각>과 다릅니다.

생각뿐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다릅니다.

<하나님의 생각>은 ‘하늘’ 같이 높고 이상적이고,  
<사람의 생각>은 극적으로 최고로 생각한다 해도 ‘땅 정도’입니다.

<길>로 표현하면,

<하나님의 길>과 <인간의 길>은 아예 다릅니다.

<하나님의 생각>은 땅의 누구에게나 비를 내려 주듯이,  
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생각입니다.

그러나 <사람들의 생각>은 특별한 사람만 사랑하는 생각입니다.

- ◆ 하나님은 누구나 다~~ 사랑하십니다.

사람이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사랑하면,  
그에 따라 더 ‘주실 것’ 을 주시고 더 ‘사랑’ 도 해 주십니다.

하나님은 <조건 없는 사랑>을 해 주시고,  
사람들이 그 사랑을 받고 차원 높여 오를수록  
<최고의 것들>을 주십니다.

- ◆ 사람들은 ‘하나님’ 과 다르게 생각하기 쉬우니,  
항상 ‘삼위의 생각’ 대로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.

- ◆ 하나님도 성령님도 말씀하시기를  
“사람은 <생각>으로 살아간다.” 하셨습니다.

하나님도 <생각>으로 살아가십니다.  
<그 생각>이 ‘하나님의 말씀’ 이고 ‘계획’ 이며 ‘목적’ 입니다.  
<생각>이 그리도 중하고 귀하고 큼니다.

- ◆ 그 어떤 사람이라도  
<생각>을 잘못하고 살면, 실패합니다. 고생합니다.

어린이든, 청소년이든, 청년이든, 다 큰 어른이든  
평신도든, 지도자든, 큰 사명을 맡은 자든  
<생각>을 잘하고 행해야 됩니다.

처음부터 끝까지 생각을 잘하려면,  
<생각>은 ‘절대자 하나님의 생각’ 으로 하고  
<자기>는 ‘그의 몸’ 이 되어서 살아야 됩니다.

## <잠시 쉬었다가> 중요 부분

- ◆ 성경을 보면 “**주는 교회의 머리이시다.**” 했습니다. (엡 5:23, 골 1:18)

하나님은 <보낸 자>를 통해 ‘하나님의 생각’을 전하시고,  
그 ‘말씀’으로 나타나십니다.

- ◆ <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생각>을 이루시기 위해  
<천지 만물>을 창조하시고 <인간의 육과 영>을 창조하셨습니다.

<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생각>은  
곧 ‘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한 목적’입니다.

곧 <삼위의 사랑의 대상체, 인간>을 만들고  
<인간의 육신>을 통해 <그 영혼>을 ‘신부’로 만들어  
영원히 사랑하며 사는 목적입니다.

- ◆ 하나님은 이 <목적>을 두고,  
6000년 동안 구약과 신약의 구원 역사를 하시며  
시대마다 그 시대에 맞게 뜻을 이루어 오셨습니다.

그러다 <마지막 성경의 약속>대로 이 땅에 ‘구원자’를 보내어  
그를 통해 ‘하나님의 생각’을 주시고,  
<성경에 약속하신 말씀>을 이루게 하셨습니다.

곧 <사랑의 말씀, 휴거의 말씀>입니다.

<그 약속의 말씀>이 ‘하나님의 최고의 생각’입니다.

<그 생각을 이룬 자들>이 그리도 크고 엄청난합니다!  
이들이 ‘하나님 세계의 최고의 것들’을 차지합니다!

◆ 섭리사에 온 여러분들은

모두 <이 시대 하나님의 생각>을 이루며 개성대로 일을 합니다.

항상 <하나님의 생각>대로 하고 있는지, 수시로 확인해야 됩니다.

<하나님의 생각대로 한 것>만 ‘공력’ 이 되고,

그 공력이 ‘자기 영’ 에게 가서 영원히 누리게 됩니다.

<자기 생각대로 한 것>은

- ‘수고’ 는 많은데 실상 ‘열매’ 는 적고,

- ‘자기 육’ 에게만 작게 이루어지고,

- ‘이 세상’ 에서만 받고 끝납니다.

이왕 하는 것 <하나님과 주의 생각>대로 하면,

그 차이가 ‘하늘이 땅보다 높음’ 같이 높습니다.

오직 <하나님의 생각대로 한 것>만 ‘영’ 에게 갑니다.

이것을 바로 알고 행하며,

말도 행실도 <하나님의 생각>대로 했는지 늘 확인해 봐야 됩니다.

◆ 사람들은 거의 <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>을 좋아합니다.

고로 온 세상의 많은 자들이

<영원하신 하나님의 생각>대로 살지 못합니다.

<하나님과 주를 믿어도 자기 생각대로 사는 자들>이 너무 많습니다.

하나님이 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사는 자라야

<하나님의 뜻과 생각대로 사는 자>입니다.

- ◆ <자기 생각>대로 살면 ‘자기 뜻’ 을 이루고,  
그 공적도 ‘세상’ 에서 끝납니다.

<자기 뜻>대로 살아 놓고서

“나는 한 일이 많으니,

<내가 한 일>이 모두 ‘의’ 가 되어 천국에 있겠지.” 생각합니다.

그렇게 생각하고 천국에 가 보면,

생각보다 공적이 없으니 너무 허무하고 실망하고 억울해합니다.

그 차이는 ‘하나님의 생각과 자기 생각의 차이’ 에서 온 것입니다.

- ◆ <주의 생각>이 ‘머리’ 가 되고 <자기>는 ‘몸’ 이 되어 행해야  
<하나님의 생각대로 산 자>가 되어  
그 공력이 ‘육’ 과 ‘영’ 에게 가서 육과 영이 누리고,  
그 <영>이 ‘신부의 형체’ 로 형성되어  
<삼위의 사랑의 대상체>로서 받고 누리고 살게 됩니다.

- ◆ 오늘 말씀은 <영원한 것과 땅의 잠간의 것을 좌우하는 말씀>입니다.  
정말 명심하고, 뇌 속에 깊이 새기고 생각해야 됩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 중요 부분

- ◆ 정말 <생각>이 중합니다.

누구의 생각이나, 어떤 생각이나에 대해

하나님도 성령님도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.

말씀해 줘도 또 <생각>에서 잊어버리고 사니,

<문제>가 옵니다. <사탄>이 옵니다. <실패>가 옵니다.

◆ <하나님의 생각>으로 즉시 행해야 됩니다.

안 하면, ‘과거에 수고한 것’ 이 무너집니다.

섭리사를 나간 자들을 보면, 그 원인이 다 똑같습니다.

처음에는 <하나님의 생각>으로 하다가,

조금씩 <자기 생각>대로 하다가,

결국 완전히 <자기 생각>대로 삽니다.

그러다 결국 주를 등지게 되어,

<그동안 자기가 행한 것>이 다 무너졌습니다.

◆ 지금이 너무 중요합니다.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

그런데 그동안 잘하다가, 자기 생각대로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.

각 교회마다 있습니다. 그럼 절대 안 됩니다.

<휴거 700선>만 넘어가도 ‘자기 생각’ 대로 안 합니다.

<휴거 1000선이 넘어간 자>는

아예 ‘자기 생각’ 으로 해지지 않습니다.

<자기 생각>을

아예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생각으로 만들어 버린 자들입니다.

◆ 이번 17기 신학생들은

지난 9개월 동안 계속 주께 배우고,

말씀으로 무장하며 힘들어도 행하고,

<주의 말씀, 주의 생각>대로 행하고자 몸부림치고,

뛰다가 안 돼서 낙심하면 자꾸 일으켜 세워 주니

<자신>도 많이 성장했고 <생명들>도 전도했습니다.

생각보다 못 하는 자들도 자꾸 끌어 주고 채워 주면서 하니,  
작게라도 행하며 잘 왔습니다.

- ◆ <지난 10년의 십자가 기간> 동안 이번 17기 신학생들이  
가장 많이 전도했고 주의 생각대로 행했습니다.

어리고 부족해도 계속 <주의 말씀>,  
곧 <하나님의 생각>을 붙들고 왔기 때문입니다.

물론 못 한 자들도 있습니다.

그러나 <17기 신학생 전체>의 ‘평균’을 내 보면,  
<그 행함의 차원>이 ‘휴거 700선 정도’입니다.

- ◆ <휴거 700선>만 돼도 ‘자기 생각’대로 안 한다고 했지요?

앞으로 1년 더 남았습니다.

계속해서 오직 <하나님과 주의 생각>대로 행하며 배우면서 뛰고,  
앞으로 졸업해도 가치 있게 뛰기 바랍니다!

<17기 신학생으로서의 자부심과 마음가짐>이  
늘 떠나지 않고 붙어 있어야  
<휴거 700선 차원>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.

주가 부흥강사를 학장으로 세워 많이 신경 쓰고 가르쳤으니,  
그 가치와 사랑을 알고  
끝~~까지 <하나님의 생각>대로 행하기 바랍니다. (알겠습니까?)

- ◆ 섭리인 모두 이같이 하면, 섭리사가 배로 성장하고 잘됩니다!

- ◆ 모두 지금까지 잘 이기며 왔으니,  
끝에 와서 실망하지 말고 <생각>을 잘해야 됩니다.
- ◆ 성령님은 <생각>으로 인도하십니다.  
고로 성령을 받으면 ‘성령과 주의 생각’ 으로 행하게 됩니다.

성령을 받아도 ‘육성’ 이 일어나면,  
<성령의 생각>으로 안 하고 <자기 생각>으로 하게 됩니다.

- ◆ 이에 따라 성령님은 말씀하시기를  
“<자기중심적 생각>은 ‘사망’ 이다.” 하셨습니다.

이 말씀이 맞아요? 틀려요? - 맞지요?

<자기 생각>으로 하다가  
결국 ‘주’ 를 등지고 ‘영원한 것’ 을 놓치기 때문입니다.

<자기 생각>은 곧 ‘영적인 상태에서 육적으로 탈선하는 것’ 입니다.

- ◆ 성령님은 말씀하셨습니다.

“2017년의 마지막 이때, <생각>이 그리 중하다.

<하나님의 생각>을 ‘알파’ 로 해서 시작했으니,  
<하나님의 생각>을 ‘오메가’ 로 해서 끝내야 한다.

처음과 나중, 알파와 오메가 - 이것은 ‘하나’ 다.

2017년을 이렇게 마무리해야  
2018년을 ‘희망과 감사’ 로 맞게 된다.

2018년은 <희망과 감사의 해>다.

올해를 <하나님과 주의 생각 100%>로 하여 끝맺고,  
새해를 <하나님과 주의 생각>으로 맞이하자.

고로 이 말씀을 전해 준다.” 하셨습니다.

- ◆ 이 말씀이 <올해 마지막 말씀>입니다.

원래 <내년도 말씀>인데,  
성령께서 오늘 내보내라 하셔서 보냅니다.

### <말씀 마무리>

- ◆ 이 말씀을 쓰는 날 새벽에 하나님도 성령님도 말씀하시기를  
“<마음과 생각>이 얼마나 중한지 아느냐.” 하시며

첫 마디에

“사람은 <마음과 생각>으로  
세상을 쥐기도 하고 놓기도 한다.

생각을 잘하여 세상 큰 것을 쥐기도 하고,  
생각을 잘못하여 쥔 것을 놓기도 한다.

<생각>이 그리도 크고 중하다. <생각>을 잘해라.” 하셨습니다.

- ◆ 어떤 사람은 주 곁에서 크게 행하며 살다가도  
**<생각>을 잘못하고** 하나님과 주가 맡긴 일을 안 하겠다고  
자기 위치를 떠나 세상으로 가기도 했습니다.

잘못된 생각,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자기 생각에서 온 결과입니다.

다 와서 ‘소돔 땅의 심판을 피하러 가는 길에  
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’ 와 같은 격입니다.

- ◆ 성령님은 말씀하시기를

“다 와서 왜 그러느냐? 큰일 난다.” 하셨습니다.

다 와서 차를 못 타면, 여태까지 온 것이 헛수고가 됩니다.

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모두에게 해 줍니다.

모두 <주의 말씀>을 듣고 “아멘!” 하고 따르기 바랍니다!

- ◆ <하나님의 최고의 목적>도 ‘마지막 역사’ 에 있었듯이,  
<최고의 것>은 ‘맨 마지막’ 에 있습니다.

<주>는 ‘머리’ , <여러분 모두>는 ‘몸’ 이 되어

끝까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의 생각대로 하기를 축원합니다!

- ◎ 주의 사랑과 평강을 빕니다. 말씀 마쳤습니다.